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김인수

2008 새해설계 ①

개성인삼 역사성 · 정통성 · 우수성 체계적 정립

2009년 100% 정상화 위해 전 조합원 한마음 추진

“개성인삼농협은 2006년 3억9천 만원, 2007년 7억5천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목표는 10억 원의 흑자경영이며 2009년부터는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6년11월27일 개성인삼농협(포천시 어룡동 397번지) 조합장으로 취임한 김인수(58·사진) 조합장은 30억원의 자본금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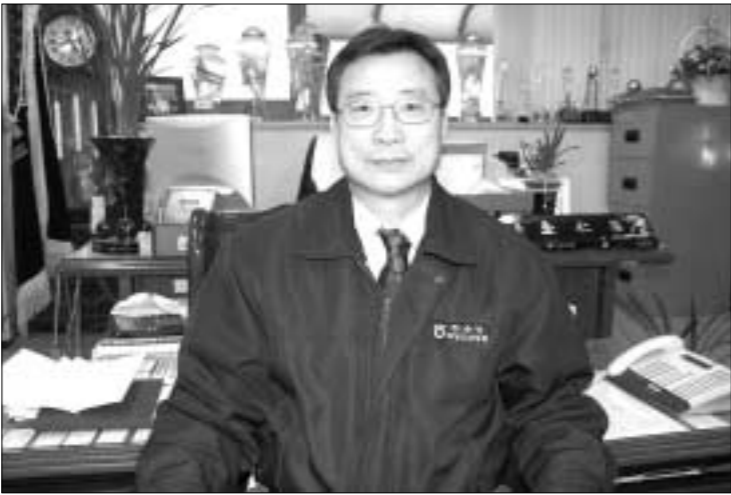
흑자경영 요인으로 김 조합장은 상품 판매량을 최대한 늘렸으며 반품처리 등 비용을 최소화 했으며 불필요한 인원 감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 12개 조합과 한삼인 등 내수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데다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

김 조합장은 개성인삼농협은 6년근만 취급하고 있어 원료가격이 높고 품질은 우수하지만 가격경쟁력이 어렵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개성인삼농협은 오직 6년근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농약잔류성 검사에서도 잔류농약 수치가 나오지 않아 이상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최근 중앙에서 경영진단을 실시해 시장가치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2009년이면 100%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성인삼조합의 주요사업의 기본방향은 인삼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조합운영을 극대화하며 인삼제품의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산지유통 전문조직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원의 실익을 증대하며 선진조합 진입 기반을 조성하고 수입개발 대비 차별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사업추진의 목표는 인삼재배 및 신경작 기술공급, 양질인삼 생산체제 확립 및 경작기술 보급, 경작자재의 적기공급, 계약재배 활성화, 신용사업의 활성화로 인한 자금 조성 극대화, 하나로 마트의 운영 활성화,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및 유통판매 기반 구축,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 마케팅 추진,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체계화, 가공 기술 및 지도, 조합원에 대한 원사업 확대 및 선진 조합 육성

에 두고 있다.

김 조합장은 우선 단계적으로 인삼 수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을에 인삼을 수확할 시기에는 날씨가 춥고 도난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인삼수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경영진과 본소 및 공장의 생산과 영업과인을 통합해 운영하고 연천지소를 전산화 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특히 개성인삼농협은 신제품 개발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신제품을 개발해 학교나 군부대 등에 대량으로 판매하여 누구나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자를 늘려주시고 제품애용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조합원들이 지난해 수매가의 3%씩을 출사해주었다

고 밝혔다.

노조 또한 그동안의 비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개성인삼농협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준다고 있는 점도 아주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중앙에서 경영진단 후에 자금 18억4천300만원을 오는 2009년까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개성인삼농협에 있어서 행운이라고 한다.

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 김 조합장은 “지역농축산물을 포천시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축재 또한 생산적인 축재, 크게 보고 축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김 조합장은 “개성인삼은 그 품질 면에서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어 학술적인 측면에서 개성인삼의 역사성 · 정통성 · 우수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성인삼농협은 포천을 비롯해 양평, 가평, 구리,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의정부, 연천 등 9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을 가공판매하고 있으며 직원은 44명, 조합원은 비조합원까지 모두 3천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 조합장은 “그동안 아픔을 정리하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한결 의욕없이 조합경영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며 “2009년이면 정상화되어 개성인삼농협이 새로운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우리지역 사업소 코단콘크리트(주)

산업 폐기물(석재가공잔재)에서 건축·토목 원자재 생산



대표이사 박용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새로운 기술과 창의력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코단콘크리트(주)(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440-1 대표이사 박용수).

코단콘크리트(주)는 석가공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습·건식 축대 옹벽 블록을 생산하는 특허 제0552342를 이용하여 축대 블록을 생산하면서 원자재인 산업 폐기물 입고 시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찾는 고객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기관과 생활 폐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완제품을

치나 철차에 의해 처리되지 못하고 공사 현장 또는 매립지역에 불법적으로 매립되어 환경오염을 야기 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석재, 잔재 폐기물의 재활용은 비단 원가 절감 문제 뿐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환경 측면에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과제였다. 코단콘크리트(주)는 박 대표가 30년 동안 성한기계를 운영해온 만큼, 확보한 기술력으로 석재, 잔재 폐기물을 필요한 원료로 재활용하는 기계를 제작해 여기에서 생산된 원료로 제품의 개발과 이에 대한 허가를 받게 되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전 공장부지 매입 시 원석 및 원자재 수급 원활, 공장에서 필요한 원자재 수급체계가 가능한 위치, 원석 폐기물을 이용한 원자재 완제품 및 원자재 인증 허가 등이 가능한 부지를 마련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산업 폐기물에서 신제품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코단콘크리트(주)의 공정을 알아본다.

- ◇원석 수급 및 가공공정
- 1-1. 원석 반입(석재 가공 잔재). 1-2. 원석 투입 및 원석 파쇄. 1-3. 원자재 생산
- ◇원자재를 이용한 완제품 자동화 제조공정
- 2-1. 원자재 투입 골재호퍼. 2-2. 혼합믹서. 2-3. 압축성형(유압 및 진동). 2-4. 1차 양생투입(무인 Auto). 2-5. 1차 양생 반출(무인 Auto). 2-6. 제품 Auto - Qubing). 2-7. 제품 2차 양생 및 야적. 2-8. 완제품 출하로 이어지며 출고 차량을 통해 거래처로 수송된다.

지속적인 산업 폐기물(석재가공잔재) 재활용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오염 없는 깨끗한 환경 대물림

생산·판매하고 있다.

박 대표는 코단콘크리트(주)를 설립하기 전 30년 동안 건축·토목 자재인 벽돌블록, 토목자재를 생산하는 기계를 제작하며 국내 건축·토목 분야에 기여해온 대표적인 기업을 이끌어 오면서 모든 제조업체들이 영월하 안고 있는 속세는 원자재 수급과 원가 절감이라는 사실을 재차 실감해왔다. 전국 어디서나 석산 또는 석재가공단지 내에서 발생한 석재, 잔재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면 원자재 수급과 원가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공장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석재, 잔재 폐기물은 수 십 년 동안 어떠한 법적인 조

현재 코단콘크리트(주)는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원자재 수급과 원가 절감의 문제를 석재, 잔재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하였으며 나아가 차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환경에도 기여하는 앞선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 코단콘크리트(주)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주된 환경을 잘 활용하는 데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여 지구오염을 방지하는 방법과 제품의 수명이 다했을 때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개발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문의 T. 031)531-4850 ~ 1. F. 031)531-4852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코단콘크리트(주)는 석가공 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이용하여 습·건식 축대 옹벽 블록을 생산하는 특허 제0552342를 이용하여 축대 블록을 생산하면서 원자재인 산업 폐기물 입고 시 수입이 발생하고, 그것을 원자재로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다.

행복한 보험이야기 19

리스크(위험)를 대비하는 보험

보험은 만일의 위험을 대비하는 무형의 상품이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살다가 갈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기에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내에게도 언제 어느 때 불어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보험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보험이 그 인생의 모든 행복을 줄 수는 없다. 정신적인 충격을 해결 해 주지는 못하지만 그 충격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한다면 그것은 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목돈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보험 상품의 종류도 다양하다. 종신, 암, 정기, 상해, 재해, 자동

차, 화재, 연금, 유니버설, 변액유니버설, CI, 민영의료, 저축, 교육, 어린이 보험 등등... 이러한 보험의 종류 가운데 가장 우선 가입해야 될 것이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장성 보험을 가입한 후 목적적 자금을 위한 저축성과 노후를 대비한 연금 상품 등에 가입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렇다면 한 달 보험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보험을 가입할 때는 총수입금에서 15%~2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보험 상품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도 가까운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가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상품 내용을 꼼꼼히 따져 보고 중복되는 보장은 피해서 새나가는 돈을 줄여야 한다.

납입기간과 보장기간은 어떻게 설계해야 좋을까요?

보통, 납입기간 20년, 보장기간 80~90세로 보장기간은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 한 살이라도 적을 때 가입해야 같은 보장을 받는 데 적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대부분의 보험은 2년이 지나면 해약률이 40%에 이르고, 10년 이상 보증을 유지할 확률은 29%, 만기까지 보증을 유지하는 비율은 3~5%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보장을 받는 데 20년 납입하는 것보다 10년이나 15년 납입을 선택하면 그만큼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험료 납입 면제의 혜택이 크다.

만약 보험에 가입하고 3년 후에 재해사고로 인하여 2~3급 장애를 입으면 지금까지 내던 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회사에서 대신 내주며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본인의 경제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선택해야함은 물론이다.

가입 시기는 건강한 지금, 한 살 더 늙기 전에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2008년 새해가 밝고도 벌써 1월 중순이 지나 하순이 되고 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각종 운동모임에 가입을 한다. 그와 더불어 빠뜨리지 말고 장기적인 인생 설계를 해야 한다.

인생이 예측불허인 의미에서 보험은 매우 중요한 설계중의 하나이다. 반드시 재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정 코인스 포천영업소장 010-3023-0065

사제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상속세 신고하지 않으면 30%이상 더 납부해야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상신고한 때에 비하여 세금을 30%이상을 더 내야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2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액이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 정상 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0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 X 10%) = 1,000천원

-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3,095천원
① 납부세액 : 10,000천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20% = 2,000천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X 365 X 0.03% = 1,095천원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내야 한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인인 아들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부통산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 처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안 내도 될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2~4489)

산업안전사고 예방

페드럼 뚜껑 산소절단작업 중 폭발

▶ 재해발생 개요

• 2006년 00월 0일 오후 2시경 00아파트 신공공사 현장에서 피재자가 바리제로 사용하고 남은 페드럼의 뚜껑을 산소절단기로 절단작업 중 페드럼이 열에 의해 팽창·폭발하면서 화재발생하여 열굴, 복부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합병증으로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인원

가. 석유류 물질(바리제) 잔류 상태 미확인
• 석유류 물질(바리제)이 공 드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를 철저히 확인.나. 유류 등이 존재하는 공 드럼 절단작업 개선
• 위험물(유류 등)이 잔류되어 있는 경우 드럼통에 대해 환기 및 세정 등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의 폭발·화재의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석유류 물질(바리제) 잔류 상태 확인 및 제거 철저
• 석유류 물질(바리제)이 공 드럼 내부에 잔류되어 있는 상태를 철저히 확인.나. 유류 등이 존재하는 공 드럼 절단작업 개선
• 위험물(유류 등)이 잔류되어 있는 경우 드럼통에 대해 환기 및 세정 등 미리 위험물을 제거하는 등의 폭발·화재의 예방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도원 (031-826-6091)

국민연금 Q&A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의 대상은 누구인가?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

27세 미만 학생·군인도 납부 예외

적용 제외된 국민연금 당 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8세 미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연금을 가입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나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자 중에서는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제외 대상이다. 그의 무소득 배우자도 해당된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

국민연금 없는 자도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마찬가지다. 27세 미만 학생, 군인도 소득이 없으면 당 연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적용 제외 대상일도 납부 예외자가 있다. 납부 예외는 가입이 되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해당자는 납부 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사 031-544-8700